China and the Cold War after Mao (Chen Jian)

김헌준 (고려대)

1976.9.9. 중국을 27년 통치한 마오쩌둥의 죽음 - critical juncture
덩샤오핑의 등장과 개혁개방(reform and opening)

Mao's last revolution and China's double crisis
- 마오쩌둥의 마지막 혁명인 문화혁명(1966)의 두 가지 목적 - (1) 중국의 국가와 사회 변화 (하지만 이루지 못함) (2) 대약진운동의 실패에 따른 권력과 명예 회복 (쉽게 얻음)
- 마오쩌둥의 20여 년간 시도한 "대중 동원"을 통한 혁명의 모습을 지님
- 이 시기에 국제적 고립과 안보의 위협: 미국과의 관계, 소련과의 관계 (결국, 소련의 위협이 더 컸고 결국에는 미국과의 화해 시도)

The Sino-American rapprochement as a turning point
- 미중간의 관계회복은 심각하게 나뉜 냉전질서를 재편하는 중요한 사건임 (미소간의 균형에도 영향, 미소 중심의 공산-자유진영의 구분을 모호하게 함)
- 마오쩌둥의 three world theory - intermediate Zone (미소에 의해 지배받지 않는)에 기반하나 그것보다는 더 나아가 중국이 세계에서 가지는 중심 역할 강조
- 이것이 나중 개혁개방의 원동력이 됨 (중국의 양개백년 혹은 중국몽에도 영향?)
- 또한 이 시기에 중국이 해외 시장과의 관계 시작 - 이후의 과정의 전조

Deng's rise and the reform and opening of China
- 1976 마오쩌둥의 죽음과 1977 덩샤오핑의 등장, 그리고 1978 개혁개방 정책의 확인
- derevolutionization 과정으로서의 개혁개방 - 해외 혁명투쟁에 대한 물적지원이 줄거나 끊김 - 이것이 국제무대에서의 중국의 역할과 위상에 변화
- 일본 등으로의 유학생 파견, 그리고 서구 발전 모델의 수용

Alliance with Washington, war with Hanoi
- 덩샤오핑은 미국과의 협력이 두 가지 이점 - (1) 중국의 국제적 전략적 이해관계와 맞음 (2) 국내의 개발정책과도 맞음 - 이런 점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top priority로 둠
- 미국 또한 중국이 소련을 봉쇄하고 견제하는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이해
- 덩샤오핑과 카터: 베트남 문제 (지역의 헤게모니로 작동하고 캄보디아의 개입 문제)
- 1970~80년대 중국과 소련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갈등
- 하지만 해외로의 혁명 수출 노선이 없어진 이후에 중국 내부에서는 안보 크게 걱정않음
- 그러나 베트남과의 갈등 (1979년 전쟁) - "teach a lesson" (하지만 이는 국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국내적 요인에 의한 것임. 덩샤오핑이 이를 이용해 군부의 효율적 장악 등)
-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대한 중국의 반발 - 파키스탄 통해 아프가니스탄으로 군사적 지원 보냄 (결국 이것이 다시 중국과 미국을 가깝게 함)
- 미중관계는 대만에 호의적인 태도 보인 레이건 등장으로 위기 맞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나오지는 않음

The Tiananmen tragedy of 1989 and the end of the Cold War

- 경제발전이 지속되었으나 동시에 중국 사회도 변화하기 시작 (특히 이러한 개혁개방이 경제에만 국한되는 것에 대한 반발하고 경제발전에 걸맞는 정치시스템 요구 시작)
- 1989년 경제의 위기 (가격 개혁 – 이후 물가 상승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 이에 더 나아가 빈부의 격차, 높은 인플레이션, 부정부패,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등의 현상도 나타남)
- 대학생을 중심으로 정치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내세운 시위 증가
- 비록 국내 상황은 좋지 않지만 국제적 상황은 괜찮음 (미중관계 – 특히 부시의 당선, 중일관계, 중소관계, 중월관계도 회복의 기미를 보임)
- 물론 천안문사태가 개혁개방의 종결하지는 않음

The Cold War and human rights (Rosemary Foot)

Human rights prior to the Cold War

- 냉전 이전의 인권 논의가 존재
- 유엔 헌장에 인권이라는 단어를 넣는 과정 – 서문과 68조 (이를 기반으로 경제사회이사회 내에 인권위원회(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생겨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노력을 함)
- 국제권리장전 = UDHR + ICCPR (정치, 시민적 권리) + ICESCR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The politics of repression in the Cold War

- 냉전 초기부터 인권에 대한 미소 간 갈등과 경쟁 존재 (이러한 이념 갈등으로 인해 인권 논의의 진행이 저해)
- 하지만, 이것 이외에도 미소 양국의 국내에서 새로운 인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
- 이런 이유에서 인권 규범 자체만이 아닌 다른 유엔의 기구나 노력들도 정치화 (예를 들어, UNHCR 같은 기구도 초기에는 미국의 이해관계 대변한다고 소련에게 비판받음 – 공산권 국가를 벗어나는 난민에게 호의적이라고 주장)
- 미국: 과테말라의 사례 – 1954년 미국의 개입 (좌파 정권의 축출 – 향후 30년 동안 개입)
- 이러한 방법이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엘살바도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 – 이 과정에서 우파 정권에 의한 인권침해 일어나고 미국은 이를 묵인
- 중공: 한국전 개입, 소련: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개입 – 국내 국외의 사찰, 구속 증가
- 중공과 소련도 외국에 개입함에 있어 인권 문제를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지원 (이라크 후세인, 기니, 말리, 에디오피아 등 아프리카 국가들)

Bringing the rights regime and sustaining the rights idea

- 이념적 갈등은 이렇듯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긍정적인 영향도 미침
- 세계인권선언 등장 이후 NGO나 국내 기구, 다른 국가, 개인들이 이 장치를 이용해 자신의 목적을 추구함 (인권 NGO들의 등장과 그들의 국가에 대한 그리고 국제기구에 대한 영향력

증가, 개발도상국 혹은 제3세계 국가들 또한 이를 이용해 인종편견, 차별, 식민주의에 맞섬, 유럽의 국가들도 선진적으로 인권 향상에 힘씀

- 국제적 인권의 확산은 미국과 소련의 국내 인권 향상에도 기여
  - 미국의 인종문제에 대한 중국, 인도 등 국가들의 비난, 특히 이 문제가 베트남전 반전운동과 연계되어 미국의 대외정책의 총체적 실패라는 비판,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이 지원하는 국가의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 증가했고 이것이 연례 인권보고서의 탄생으로 이어짐
  - 소련에서도 시민사회가 등장하기 시작함

Helsinki and after

- 헬싱키프로세스(1973)의 중요성: 공산권 국가들의 시민사회나 개혁가들에게 큰 기회
- 원래의 목적은 유럽에서의 동서 국가 간 영토적, 이념적 분리를 안정화하려는 것임. 하지만 이 중에서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ncluding the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religion or belief'가 있었음
- 동구권은 이것의 중요성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조약을 받아들였고 또한 조문을 공개함
- 각종 동구권 국내의 자유화 요구 세력들이 결집하기 시작하고 이들이 서구의 인권단체와 연결이 됨

Human rights and the ending of the Cold War

- 동구권 및 소련 국가에서 망명과 고르바초프의 등장
- 1986년 '신사고(new thinking)'의 등장 - 반국가세력에 대한 체포 줄고 동유럽 국가에게도 자율권이 생김 - 동구권 국가 간, 특히 소련으로부터의 간섭이 없어짐

Human rights in the Cold War

- 냉전과 인권의 변증법적 관계
- 냉전의 진행과 그 종결을 인권을 보지 않고 이해하기는 어려움
- 냉전은 역으로 인권 발전에 있어서 긍정적, 부정적인 혼합된 영향력을 미침
- 그런 이유에서 이 장은 인권과 냉전의 관계를 밝힘 (특히 미소관계에서의 인권에 집중)
- 동서간의 인권의 논의는 그것이 비록 수사였다고 할지라도 당시 인권의 담론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 냉전 붕괴 이후 인권의 논의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여함